

국민생디칼리즘과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의 교묘한 조합.-팔랑헤-

심장중의강철

<https://youtu.be/nlQUmjoxptY>

더이상 외국의 왕에 의해 죽지 않으리
빵이 없어서 굶어죽을 이가 없을 것이니
노동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노동은 의무가 아닌 권리다.
-팔랑헤 전투의 노래 가사 중

스페인 전간기는 정말 이념의 격전지라는 말이 어울릴정도의 격전지였습니다. 그러나 개중에서 우익쪽은 정말 미친듯한 격전지였습니다.

'기독교근본주의'에 근거한 '좌익' 연합인 '카를리스타'

'국민생디칼리즘'에 기반한 '혁명적 생디칼리스트와 민족주의자들의 오묘한 결합'이 만든 '팔랑헤'가 대표적인 연합관계였조

오늘은 한번 팔랑헤에(그중에서도 좌익 팔랑헤 세력) 대해서 파보도록 합시다.(역사보단 이론에 근거해서요)



팔랑헤에 파시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라미로 레데스마 라모스(Ramiro Ledesma Ramos)

팔랑헤의 좌익세력은 노동조합에 특히나 적극적이었습니다. 라모스의 경우는 특히나 더더욱 좌익적 색채를 띄었으며 이탈리아와 독일을 다녀오면서 더더욱 조합주의적 행보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라모스는 본국으로 온 뒤에 '국가의 정복'이라는 잡지를 연행하였습니다. 스페인 국민생디칼리즘의 첫 탄을 알리는 잡지(1931년 시작)는 CNT와의 생디칼리즘적 연대, 국민생디칼리즘의 형태(엄밀히는 자신이 주장하는), 과거 스페인의 영광을 외쳤습니다. 라모스의 주장은 파격적이었고 CNT에서는 아예 31년 여름 회의에서 이들과의 연대에 관한 회의까지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라모스를 위시로한 팔랑헤 좌익의 사상은 말그대로 '혁명적 생디칼리즘적'이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혁명을 지지했으며(특히 그는 부르주아와 의회민주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기관리를 주장했으며 더욱더 분권화된 노동조합자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국가주의적인 행보, 대학의 정치적인 역할을 주장하기도 하였죠 이런 점에서 라모스는 CNT와 통하는 점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면 즉 '국가주의적'면에서 극도로 달랐기에 결국 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팔랑헤 좌익의 삶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라모스는 팔랑헤가 '우익들'(CEDA 등)과 연합하는 모습에 '저 망할 팔랑헤 지도부놈들이 부르주아놈들과 연합하려한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혁명을 배반한 놈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며 아예 팔랑헤를 뛰쳐나왔고(당시 팔랑헤는 라모스-리베라 형제의 삼두정치가 이어지고있을 정도로 라모스의 지분은 컸습니다.) 이후에는 적극적인 '좌익 생디칼리즘'에 투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0세기의 새로운 세상 만세!

파시스트 이탈리아 만세!

소비에트 연방 만세!

히틀러와 독일 만세!

우리가 만들 새시대의 스페인 만세!

부르주아와 의회 민주제를 타도하자!"

- 라모스가 발간한 간행물